

Monthly

Aulos news

월간 아울로스 뉴스 | September 2006

낙소스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 선정'

Naxos new release



베토벤-리스트: 교향곡 7번 & 교향곡 8번 (피아노독주판곡)

콘스탄틴 세르바코프 (피아노)

베토벤은 막 천재피아니스트로서 빈 음악계의 화제가 되었던 리스트의 연주회에 참석하여 애정 어린 입맞춤으로 이 천재소년을 격려했다. 이러한 인연 때문이었는지 베토벤이라는 이름은 평생에 걸쳐서 리스트의 음악적 이상으로 남아있었다. 그는 베토벤이 남긴 교향곡 아홉 곡을 피아노용으로 훌륭히 편곡함으로써 자신의 깊은 존경심을 예술로 승화시켰었다. 베토벤의 우수한 음악적 구조에 피아노에 대한 리스트의 천부적인 감각이 더해진 이 편곡들에 낙소스의 간판 피아니스트 자리매김한 1983년 라흐마니노프 콩쿠르 우승자 콘스탄틴 세르바코프의 뛰어난 기량이 덧붙여졌다.

바르톡: 미크로코스모스 전곡

예비 안도(피아노)

153개의 성격적인 소품들로 구성된 바르톡의 미크로코스모스는 20세기 피아노 레퍼토리의 시금석과도 같은 작품집이다. 다양한 음악적 소재와 기술적인 단계들을 망라함으로써 교육용 목적은 물론이거니와 감상용으로서도 전혀 손색이 없다. 작곡가는 사망 즈음 이 작품집의 이름을 '소우주' (미크로코스모스)로 결정하였는데, 다양한 스타일로 완성된 개개의 작품들이 모두 하나의 작은 세계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보다 더 적절한 제목을 생각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낙소스 피아니스트 계보의 만능 터줏대감이자 이시대 최고의 바르톡 해석가인 예비 안도의 연주는 이 작품의 본질로 안내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슈베르트: 피아노 트리오 D929, 소나텐사츠 D28

콩스바츠카 피아노 삼중주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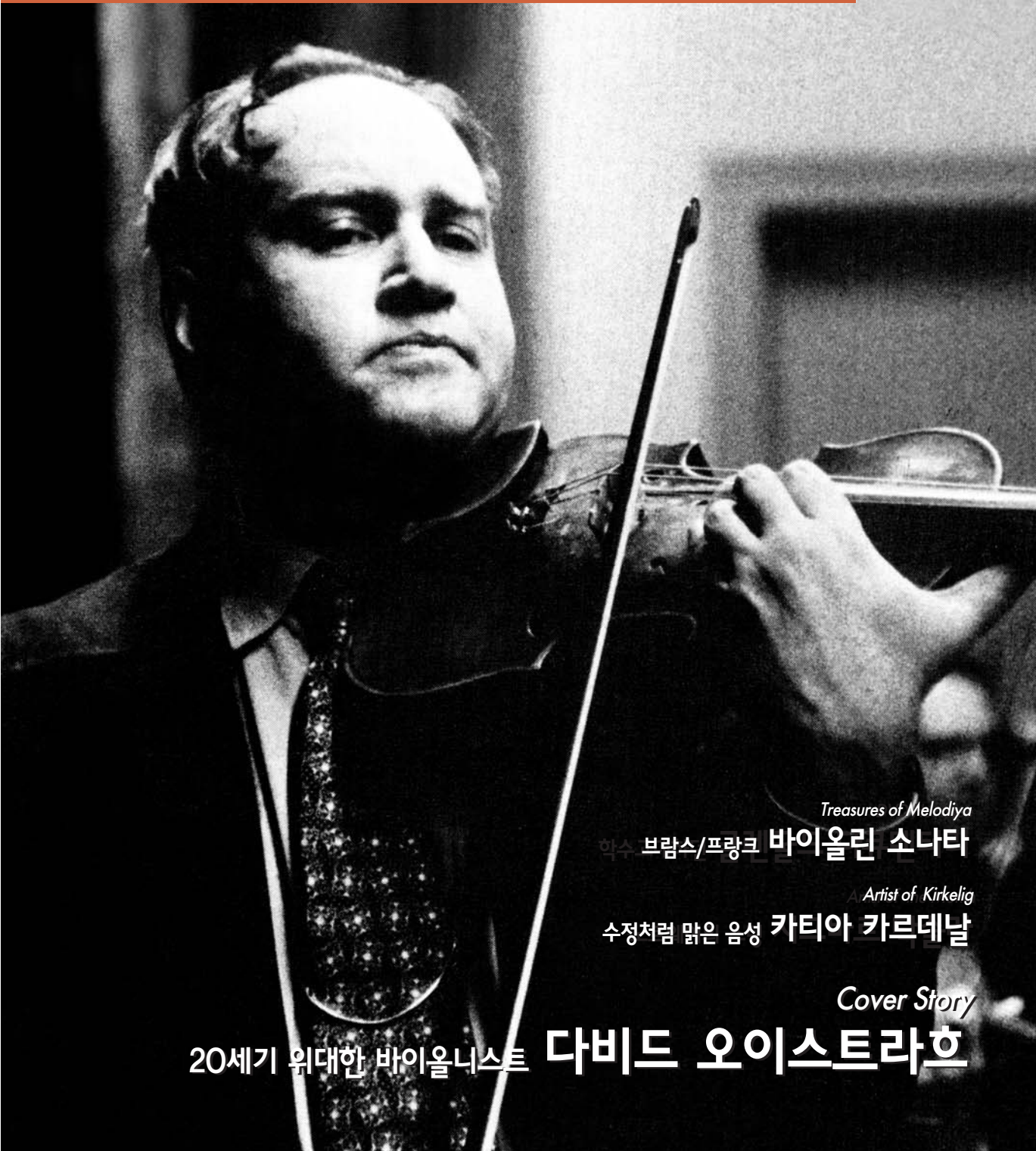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D929는 2악장의 음울한 선율이 전도연, 최민식 주연의 영화 '해피엔드'에 삽입됨으로써 국내에서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이다. 죽음을 일년 앞두고 완성된 이 작품은 실내악 작곡가로서의 슈베르트의 기량이 극한치까지 표현된 걸작인 반면, 단악장의 소품인 소나텐사츠는 작곡가가 아직 학생신분이던 15세 때의 작품으로 풋풋한 선율이 돋보인다. 뮌헨 실내악 콩쿠르 우승단체인 영국 실내악계의 신성, 콩스바츠카 트리오가 연주를 맡았다.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모음곡 버드: 관악기를 위한 세레나데 리드: 멕시코의 축제(콘서트 밴드를 위한 멕시코 민요 교향곡)

피바디 음악원 관악 앙상블
하들랜 D 파커, 지휘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합창음악인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가 관악앙상블을 위한 음악으로 거듭났다. 원곡의 탄력적인 리듬과 원초적인 에너지가 목관 앙상블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소노리티를 통해 한결 생동감 넘치게 펼쳐진다. 아서 버드의 세레나데는 1901년 최우수 실내악작품으로 파데레프스키 상을 수상한 작품. 멕시코의 토속적인 민요들과 성모 축제의 영감을 효과적으로 관악법으로 표현한 리드의 작품 또한 목관 앙상블의 색다른 묘미를 한껏 드러내는 작품이다.

8.557767 사라사테: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품들 1집 (스페인음악 1-8번, 비스카 기성곡, 안달루시 세레나데, 발라다, 호나 아라고네사) 티안와 앙(바이올린) 마르쿠스 하들라(피아노)	8.570238 쇼스타코비치: 베를린 함락, 잊을 수 없는 1919년 모스크바 카펠라 모스크바 심포니 아드리아노, 지휘	8.557577 엘가: 관현악소품집 (프와르트 서곡, 5개의 노래, 카리시마, 비순을 위한 로망스, 3개의 성격적 소품, 미뉴에트, 아델의 노래, 밤의 노래, 3개의 바이올린 송곡) 프리먼 틸슨(바순) 뉴질랜드 심포니 제임스 저드, 지휘	8.557903 로슬라베츠: 바이올린소나타 1, 4, 6번 솔로미아 스크카(바이올린) 아서 그린(피아노)	8.557681 기븐즈: 교회를 위한 노래들과 찬가(1623) 토누스 페레그리누스	8.570191 미칼리스 콘타자키스 기타 리사이클 (폰세: 소나타, 클레르: 불의 전주곡, 미르랑: 기타를 위한 4개의 소품, 크레라: 모음곡, 타레타: 기타 소품들, 하차투리안: 기타를 위한 전주곡) 미칼리스 콘타자키스(기타)
8.557817 라흐마니노프: 오페라 하이라이트 (알레코, 인색한 기사,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 미리나나 조베트코바(소프라노), 토이코 조베타노프(테네), 페터 나이드레노프(베이스) 외 소피아 국립 오페라 나이덴 토도로프, 지휘	8.660189-90 로시니: 토르발도와 도를리사카 후 리스-에반스(토르발도), 파울라 치니(도를리사카), 마우로 우체리(소로조) 외 브르노 체코 제임버 솔로이스츠 알렉산드르 데 마르키, 지휘	8.660158-59 쇼베르크: 모세와 아론 볼프강 쉰(모세), 크리스 메리트(아론) 슈투트가르트 국립 오페라 클린트 클루터히, 지휘	8.559053 바버: 향정음악 (아누스 데이, 버드무 아레사, 송여와 그의 고양이, 천국행곡, 동정순교자, 안소니와 클레오파트라 중 합창곡들, 하나님의 위대함, 심야와 예) 뮌헨 대학교 오온드 칼리지 합창단 더글라스 로렌스, 지휘	8.559301 브루벡: 아상곡 존 살몬(피아노)	8.559241 미국 색소폰 작품집 (크레스스: 소나타, 로망: 미르로오의 소품, 하들라: 바리톤색소폰 소나타, 호바나스: 알토색소폰과 기타를 위한 모음곡, 무원사: 소나타 외) 알렉스 미첼(색소폰) 닐 콘스바(기타) 제레미 린(피아노)



Treasures of Melodiya

악수 브람스/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

Artist of Kirkelig

수정처럼 맑은 음성 카티아 카르데날

Cover Story

20세기 위대한 바이올니스트 다비드 오이스트라흐

21세기 음악예술의 선구자

Aulos media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www.aulosmusic.co.kr

20세기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다비드 오이스트라흐 David Oistrakh 1908~1974



그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연주기술을 더 뽐내며 연주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하면 작품의 구조와 내용 그리고 작곡가가 마련해놓은 정서적인 특성을 보다 감동적으로 그려낼 수 있을까 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졌다.

다비드 오이스트라흐는 주지하듯이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중의 한사람이다. 러시아 출신의 현악기 연주자로 서방세계에서 그만큼 존경을 받으며 높고 화려한 명성을 쌓아올린 연주자는 없었다. 오이스트라흐는 1908년 오데사에서 태어났다. 다섯 살부

터 오데사에서 유명한 음악선생인 표트르 스톨야르스키(Pyotr Stolyarsky)한테 배웠고, 오데싸(Odessa) 음악원(1923년~26년)을 졸업했다. 학생 신분으로 그는 오데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독주자와 악장을 겸했고, 졸업 즈음 키예프에서 글라주노프 바이올린 협주곡이 작곡가 자신의

지휘로 초연될 때 바이올린 독주를 맡기도 했다. 1928년에는 모스크바로 이주, 1934년부터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1935년에 비에니아프스키 콩쿠르에서 2위를 했던 일은 매우 유명하다. 그때 1위를 했던 지네트느 보 때문이다. 하지만 1937년에 브뤼셀에서 열린 이자이 콩쿠르에서는 당당히 1위를 했다. 2차 세계 대전 후 1950년대에 들어 서구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시작했으며, 1955년 처음으로 미국과 일본을 방문했을 때 엄청난 환호를 받았다. 쇼스타코비치는 자신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2번을 모두 오이스트라에게 헌정했고 당연히 오이스트라흐는 이 협주곡들을 초연하는 영예를 누렸던 독주자였다.

오이스트라흐는 다양한 레퍼토리들을 잘 소화하는 연주가였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의 명연주들은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멘델스존, 브람스에서 엘가, 쇼송, 월턴, 시벨리우스, 타네예프, 글라주노프, 차이코프스키, 프로코피예프, 하차투리안에 이르기까지 정말 폭이 넓다. 그의 바이올린은 항상 풍부하고 낭랑하게 울려퍼지는 사운드를 자랑한다. 그 풍성한 음향에는 섬세하게 다듬어진 톤,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음정, 그리고 격조 높은 음악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무리 어려운 음악을 연주하더라도 오이스트라흐의 연주에서 어눌해 보이는 대목은 찾아 볼 수 없고, 명쾌한 프레이징과 정확한 음정은 숨죽이고 듣는 사람들을 늘 안심시키며 감동의 세계로 이끈다.

오이스트라흐는 탁월한 연주기술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테크닉을 과시하여 비르투오소 바이올린 연주자로서의 이미지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연주기술을 더 뽐내며 연주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하면 작품의 구조와 내용 그리고 작곡가가 마련해놓은 정서적인 특성을 보다 감동적으로 그려낼 수 있을까 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그의 연주에는 항상 인간적인 따스함이 깃들어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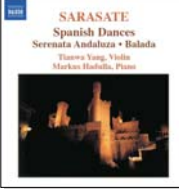
기교에 의해 느끼는 재미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예술적 감동이 있다. 이 대목은 오이스트라흐 연주의 장점들을 얘기할 때 그 어떤 요소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만약 우리 애호가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무 대부분의 통계에서 인기 1위는 다비드 오이스트라가 차지할 것이다. 그렇다. 오이스트라흐는 일반 음악애호가와 전문가에게 공히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바이올리니스트인 것이다. 그가 그렇게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가 뛰어난 연주기술에다 정신적 내용까지 높은 수준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결론 밖에는 내릴 수 없으리라. 기교가 뛰어나도 정신적 내용이 그 뛰어난 기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정신적으로는 고고하나 기술이 또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오이스트라흐는 아주 커다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연주가였다. 그는 당대의 그 누구와 비교해도 단연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늘 높은 정신성이 뒷받침되어 발휘되었다. 것처럼 완벽한 기교를 갖췄으면서도 기교파라는 이미지보다는 '진정한 예술가'라는 이미지로 존경 받는 바이올리니스트도 흔치 않다. 만년에 오이스트라흐는 지휘에도 관심을 가졌고 중요한 활동을 했다. 하지만 66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거장의 중요한 노년활동을 많이 접할 수 없게 되었던 점은 그를 사랑하는 수많은 애호가들이 가슴에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www.naxos.com

Naxos New Rele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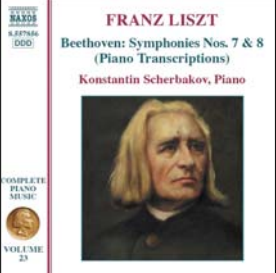


SARASATE
Spanish Dances
Serenata Andaluza • Balada
Tianwa Yang, Violin
Machon Hualin, Piano

사라사테: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품들 1집
(스페인춤곡 1-8번, 바스크 기상곡, 안달루사 세레나타, 발라다, 호나 아라고네사)
티안와 양(바이올린) / 마르쿠스 하틀레(피아노)

파가니니 이후 가장 특출한 비르투오조로 군림했던 파블로 사라사테. 그는 연주자로서의 경험과 악기에 대한 이해력을 발판으로 수많은 연주회용 소품들을 양산하였었다. 본 음반에 수록된 소품들은 특히 자신의 조국인 스페인의 향토적인 소재들에 기반을 둔 것들로, 이국적인 정취와 선율들이 눈부신 조절기교를 바탕으로 화려하게 펼쳐진다. 연주를 맡은 티안나 양은 2004년 중국 최우수 젊은 바이올리니스트 상을 수상했던 중국계의 기대 주다.

Naxos 8.557767



FRANZ LISZT
Beethoven: Symphonies Nos. 7 & 8
(Piano Transcriptions)
Konstantin Scherbakov, Piano

베토벤-리스트:
교향곡 7번 & 교향곡 8번 (피아노 독주편곡)
콘스탄틴 셰르바코프 (피아노)

베토벤은 막 천재 피아니스트로서 빈 음악계의 화제가 되었던 리스트의 연주회에 참석하여 애정 어린 입맞춤으로 이 천재소년을 격려하였다. 이러한 인연 때문이었는지 베토벤이라는 이름은 평생에 걸쳐서 리스트의 음악적 우상으로 남아있었다. 그는 베토벤이 남긴 교향곡 아홉 곡을 피아노 용으로 훌륭히 편곡함으로써 자신의 깊은 존경심을 예술로 승화시켰었다. 베토벤의 우수한 음악적 구조에 피아노에 대한 리스트의 천부적인 감각이 더해진 이 편곡들에 낙소스의 간판 피아니스트로 자리매김한 1983년 라흐마니노프 콩쿠르 우승자 콘스탄틴 셰르바코프의 뛰어난 기량이 덧붙여졌다.

Naxos 8.557856



THE FALL OF BERLIN
SOSTAKOVICH
THE FALL OF BERLIN
THE FALL OF BERLIN
THE FALL OF BERLIN

쇼스타코비치: 베를린 함락, 잊을 수 없는 1919년
모스크바 카펠라 / 모스크바 심포니 / 아드리아노, 지휘

쇼스타코비치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낙소스가 준비한 또 하나의 역작. 영화 '베를린의 함락'의 필름 스코어 전체가 이번에 최초로 녹음되었다. 1949년에 완성된 이 영화는 독소전의 총지부를 찍었던 베를린 함락전을 치절하게 그려낸 것으로 합창과 대편성 관현악으로 그려낸 영화 음악 역시도 대단히 드라마틱하면서도 전통적인 패시지들로 가득하다. 또 하나의 수록곡은 1951년에 완성된 영화 '잊을 수 없는 1919년'의 스코어에서 발췌한 콘서트용 모음곡. 1919년은 적백전이 마무리에 접어들었던 시점으로 크라스나야 고르카 요새를 사수하던 혁명군과 농민들의 무용담을 그린 작품이다. 콘서트용 모음곡 중에서 애딘셀의 바르샤바협주곡을 연상시키는 드라마틱한 피아노협주곡 풍의 악장인 '붉은 언덕 위의 습격'이 특히 인상적이다.

Naxos 8.5702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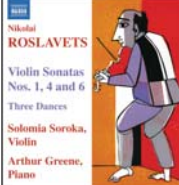


ELGAR
Orchestral Miniatures
Chanson de Manon • Chanson de Noël
Three Breton Dances • Festive Overture
New Zealand Symphony Orchestra • James Judd

엘가: 관현악소품집 (프르와사르 서곡, 5월의 노래, 카리시마, 바순을 위한 로망스, 3개의 성격적 소품, 미뉴에트, 아침의 노래, 밤의 노래, 3개의 바이에른 춤곡)
프러맨 틸스(바순) / 뉴질랜드 심포니 / 제임스 저드, 지휘

유명한 '사랑의 인사'에서 확인되듯이, 엘가는 무뚝뚝한 외모와 달리 대단히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였다. 본 음반은 로맨티스트로서의 엘가의 본성이 한껏 발휘된 사랑스러운 소품들로 가득 채워졌다. 키이즈의 시에서 영감을 얻은 초기 관현악 프르와사르 서곡의 떠들썩한 에너지가 돋보이며, 바순이라는 악기 내면에 숨겨진 서정성을 극대화한 로망스 또한 매력적인 작품이다. 원래 바이올린 소품으로 작곡된 아침의 노래와 밤의 노래 2부작은 관현악곡으로 편곡되면서 한결 화사한 색채로 거듭났다.

Naxos 8.5575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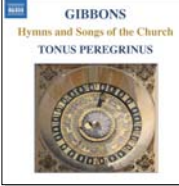


ROSILAVETS
Violin Sonatas
Nos. 1, 4 and 6
Three Dances
Solomia Soroka,
Violin
Arthur Greene,
Piano

로슬라베츠: 바이올린소나타 1, 4, 6번
솔로미아 소로카(바이올린) / 아서 그린(피아노)

니콜라이 로슬라베츠(1880-1944)는 소비에트 음악사에서 부당하게 잊혀진 작곡가다. 그는 20세기 초반 러시아의 쇠베르크라 불리며 소비에트 아방가르드 유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영향력을 발휘했었으나, 소비에트 리얼리즘이 중심 모토로 자리 잡은 이후 소련음악계에서 배척당해버린 비운의 인물이다. 수록된 세 편의 소나타들은 이 작곡가의 흥미진진한 음악관을 반영한다. 소나타 1번이 실험적이고 고난이도의 기교를 요하는 반면, 19세기 후반의 낭만음악을 추억케 하는 소나타 6번은 보다 전통적이고 불임성이 좋은 편이다.

Naxos 8.557903



GIBBONS
Hymns and Songs of the Church
TONUS PEREGRINUS

기븐즈: 교회를 위한 노래들과 찬가(1623)
토누스 페레그리누스

오늘란도 기븐즈(1583-1625)는 르네상스의 기운이 저물어가던 즈음, 영국 성교회 전례음악과 건반 레퍼토리 분야에서 크게 활약했던 주요 작곡가다. 본 음반은 작곡가의 말년이던 1623년에 출판된 종교합창곡집인 '교회의 노래와 찬가들'을 수록하였다. 전체 작품집은 즐거움, 사랑, 희생, 탄식, 승리, 통합, 믿음, 희망이라는 여덟 개의 소주제들로 구분되는데, 작곡가 특유의 섬세한 선율미와 단단하게 짜여진 음악 구조가 단연 돋보인다. 중세 초기 다성음악에서 두각을 드러내었던 토누스 페레그리누스가 르네상스 후기 종교합창곡들에서도 변함없이 흠잡을 곳 없는 훌륭한 앙상블을 들려준다.

Naxos 8.557681



Laureate Series • Guitar
Mikalis Kontarakis
First Prize
2007 Targa International
Guitar Competition,
Barcelona
GUITAR RECITAL

미칼리스 콘타자키스 기타 리사이틀
(폰세: 소나타, 클레르크: 봄의 전주곡, 마르탱: 기타를 위한 4개의 소품, 크레넥: 모음곡, 타레가: 기타 소품들, 하치투리안: 기타를 위한 전주곡)
미칼리스 콘타자키스(기타)

2005년 타레가 국제 기타 콩쿠르 1위 수상자인 그리스 출신의 기타리스트 미칼리스 콘타자키스의 리사이틀 음반. 타레가와 폰세의 전통적인 레퍼토리들에서부터 마르탱, 크레넥 등의 현대작곡가들에 이르는 이 연주자의 대단히 폭넓은 스펙트럼의 음악적 취향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쿠바 출신의 젊은 작곡가 클레르크의 작품은 이번에 최초로 녹음되는 것으로 '타레가 오마주'라는 작품의 부제처럼 타레가가 남긴 선율들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구성하였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귀에 익은 선율에 기초한 타레가의 환상곡 역시 주목할 만한 레퍼토리다.

Naxos 8.570191



RACHMANINOV
Opera Highlights
Alcina • The Miserly Knight • Francesca da Rimini
Fondation "Mikhaïl" • Ensemble Vocal
Bélise • Nadine • Belier
Sofia National Opera • Chorus and Orchestra
Nathan Vukobratovic

라흐마니노프: 오페라 하이라이트(알레코, 인색한 기사,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
마리안나 즈베트코바(소프라노) / 보이코 즈베타노프(테너) / 페터 나이드노프(베이스) 외 / 소피아 국립 오페라 / 나이덴 토도로프, 지휘

오페라는 라흐마니노프의 음악세계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장르라고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짧아서 작곡가는 이 장르에 꽤나 강한 매력을 느꼈었고, 3편의 순수한 오페라들을 남겼다. 푸시킨의 비극을 소재로 한 '인색한 기사', 단테의 신곡 중 지옥 편의 한 에피소드를 옮긴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 모스크바 음악원 재학당시 금메달을 안겨준 작품인 '알레코' 모두 작곡가 특유의 탁월한 멜로디 감각과 세련된 오케스트레이션이 뒷받침된 매력적인 작품들이다. 선 굵은 슬라브 색채가 찬연하게 전승되어온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 오페라의 일급 솔리스트들이 연주를 맡았다.

Naxos 8.557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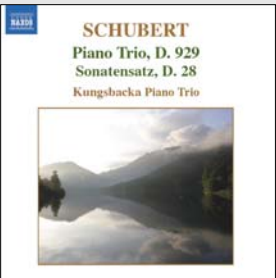


Béla BARTÓK
Mikrokosmos
(Complete)
Books 1-6
Jenő Jandó,
Piano

바르톡: 마이크로코스모스 전곡
예뇌 얀도(피아노)

153개의 성격적인 소품들로 구성된 바르톡의 마이크로코스모스는 20세기 피아노 레퍼토리의 시금석과도 같은 작품집이다. 다양한 음악적 소재와 기술적인 단계들을 망라함으로써 교습용 목적은 물론이거니와 감상용으로서도 전혀 손색이 없다. 작곡가는 사망 즈음 이 작품집의 이름을 '소우주' (미크로코스모스)로 결정하였는데, 다양한 스타일로 완성된 개개의 작품들이 모두 하나의 작은 세계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보다 더 적절한 제목을 생각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낙소스 피아니스트 제보의 만능 타춤패갑이자 이시대 최고의 바르톡 해석가인 예뇌 얀도의 연주는 이 작품의 본질로 안내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Naxos 8.557821-22



Naxos 8.555700

슈베르트:
피아노 트리오 D929, 소나텐샤츠 D28

쿵스바츠카 피아노 삼중주단

슈베르트의 피아노 트리오 D929는 2악장의 우울한 선율이 전도연, 최민식 주연의 영화 '해피엔드'에 삽입됨으로써 국내에서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던 작품이다. 죽음을 일년 앞두고 완성된 이 작품은 실내악 작곡가로서의 슈베르트의 기량이 극한치까지 표현된 걸작인 반면, 단악장의 소품인 소나텐샤츠는 작곡가가 아직 학생신분이던 15세 때의 작품으로 풋풋한 선율미가 돋보인다. 뮌헨에 실내악 쿵쿠르 우송단체인 영국 실내악계의 신성, 쿵스바츠카 트리오가 연주를 맡았다.



Naxos 8.660189-90

로시니: 토르발도와 도를리스카

후 리스-에반스(토르발도) / 파올라 치냐(도를리스카) / 마우로 우체리(조르조) 외 / 브르노 체코 챔버 솔로이스츠/ 알레산드로 데 마르키, 지휘

로시니의 오페라 '토르발도와 도를리스카'는 베토벤의 '피델리오'와 유사한 주제를 다룬 일종의 구술 오페라이다. 초야권을 발동하려는 비열한 공작에 꺾박받는 토르발도와 도를리스카 부부와 이들을 위기에서 구하는 조르조의 활약을 그렸다. 전곡 중에서 두 부부의 애틋한 사랑을 담은 도를리스카의 아리아 'Dove son?'과 이별을 고하는 2막의 이중창 등이 유명하다. 2003년 독일 빌드바트의 로시니 페스티벌 중의 실황으로 오후스 111의 비발디 에디션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크 음악계의 신성 알렉산드르 드 마르키가 지휘를 맡았다.



Naxos 8.660158-59

쇤베르크: 모세와 아론

볼프강 쉰(모세) / 크리스 메리트(아론) / 슈투트가르트 국립 오페라 / 롤란트 클루티히, 지휘

1921년 유럽 일대를 휩쓴 반유대주의를 뼈저리게 체험했던 쇤베르크는 그에 대한 반동심리로 자신의 유대핍춤에 대한 정체성을 음악으로 확고히 표현하고자 결심하였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의 역작 오페라 '모세와 아론'이다. 구약 출애굽기에서 발췌한 모세와 아론 형제 사이의 신뢰와 갈등에 관한 에피소드를 특유의 12음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표현하였다. 작곡가는 1932년 2막까지만 완성된 채 장기간 방치되었던 작품을 사망하던 해인 1951년에 다시 완성하고자 하였으나, 사망과 함께 끝내 미완성상태로 남게 되었다. 본 음반은 2003년 12월 슈투트가르트 국립 오페라의 실황을 옮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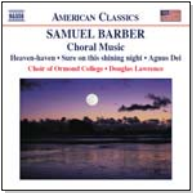


Naxos 8.570242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모음곡
버드: 관악기를 위한 세레나데
리드: 멕시코의 축제(콘서트 밴드를 위한 멕시코 민요 교향곡)

피바디 음악원 관악 앙상블 / 하를렌 D 파커, 지휘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합창음악인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가 관악 앙상블을 위한 음악으로 거듭났다. 원곡의 탄력적인 리듬과 원초적인 에너지가 목관 앙상블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소노리티를 통해 한결 생동감 넘치게 펼쳐진다. 아서 버드의 세레나데는 1901년 최우수 실내악작품으로 파데레프스키 상을 수상한 작품. 멕시코의 토속적인 민요들과 성모 축제의 영감을 효과적 관현악법으로 표현한 리드의 작품 또한 목관 앙상블의 색다른 묘미를 한껏 드러내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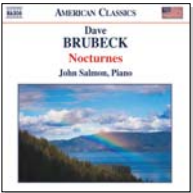


Naxos 8.559053

바버: 합창음악 (아누스 데이, 버드나무 아래서, 승려와 그의 고양이, 천국향구, 동정녀순교자, 안소니와 클레오파트라 중 합창곡들, 하나님의 위대함, 십이야 외)

멜버른 대학교 오몬드 칼리지 합창단 / 더글라스 로렌스, 지휘

바버는 기악곡과 성악곡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여러 작품을 양산하였다. 그는 영국과 아일랜드 작가들의 텍스트에 기초하여 여러 합창곡들을 남겼는데, 이들의 감성적인 시상이 자신의 로맨틱한 음악관과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스페인 내전에서 전사한 한 군인을 묘사한 '스톱워치와 측량지도', 야심적인 아카펠라 대작인 '하나님의 위대함', 그리고 영화 플래툰을 통해 전 세계적인 히트 곡에 등극했던 '현을 위한 아다지오'에 미사 통상문 마지막 장의 텍스트를 입힌 '아누스 데이', 오페라 '바네사'와 '안소니와 클레오파트라'에서 발췌한 합창곡 등등이 함께 수록되었다.



Naxos 8.559301

브루벡: 야상곡

존 살몬(피아노)

데이브 브루벡(1920년생)은 모던 재즈피아니스트의 가장 위대한 이름의 하나다. 그는 클래식을 기반으로 스윙감이 절제된 주법을 선보임으로서 새로운 재즈피아노의 연주 기법을 제시한 아티스트이다. 그의 작품을 재즈와 클래식 어느 쪽에 놓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저마다 의견이 갈릴 것이나, 어떤 장르에 속하건 그가 만든 음악이 주는 감동만큼은 변함없을 것이다. 그의 야상곡들은 비교적 쉬운 연주기교를 요하나, 느린 템포 속에 담아낸 부드럽고 우아한 악상은 쇼팽의 그것을 충실히 계승하였다.



Naxos 8.559241

미국 색소폰 작품집
(크레스톤: 소나타, 로렘: 마른으로의 소풍, 하틀리: 바리톤색소폰 소나타, 호바네스: 알토색소폰과 기타를 위한 모음곡, 무친스카: 소나타 외)

알렉스 미첼(색소폰) / 닐 혼스비(기타) / 제레미 린(피아노)

색소폰의 독특한 음색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나라는 다름 아닌 미국이었다. 재즈에서 이 악기가 차지하는 위치는 클래식계의 피아노나 바이올린에 비견될 것이다. 재즈 정도는 아닐지라도 미국 클래식계 역시 이 악기의 관능적인 비음을 적극 활용하였다. 본 음반에는 색소폰의 색다른 매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다양한 성격의 작품들이 망라되었다. 소울 음악의 영향이 느껴지는 로렘의 작품에서부터 동경에 찬 호바네스의 모음곡에 이르기까지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지닌 진한 매력이 음반을 가득 채웠다.



Naxos 8.559443

와이너: 유대 노래의 예술

여러 가수들 / 예후디 와이너 & 배리 스나이더(피아노)

라자르 와이너(1897-1982)는 오늘날 유대 아트 송 장르의 가장 탁월한 작곡가로 기억된다.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0여 편 이상의 노래들을 남겼는데, 유대음악의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음악예술적인 측면에서도 꽤나 출중한 것들이었다. 유대 아트 송은 1910년대 시작된 장르로 구식이 되어버린 전통유대민요를 대신하여 이 다사 다난했던 민족의 감성을 채워주었던 새로운 위안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다. 본 레코딩에는 작곡가의 아들이자 현역 작곡가인 예후디 와이너가 직접 피아노반주를 맡아서 음반의 완성도를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www.naxos.com

Naxos Historical, Jazz Legends



Naxos 8.111042-44

베르디: 아이다(1955년 7월 녹음) + '운명의 힘' 발췌(마리아 앤더슨 메트 데뷔 레코딩)

진카 밀라노프(아이다) / 유시 비올링(라다메스) / 페도라 바르비에리(암네리스) / 레너드 워렌(아모나스로) / 보리스 크리스토프(람피스) / 로마 오페라 / 요넬 페를레아, 지휘

1956년 영국의 그라모폰은 이 레코딩을 두고 '지금까지 출시된 가장 완벽한 아이다 레코딩'이라고 평했다. 밀라노프, 비올링, 바르비에리, 워렌, 크리스토프라는 유래를 찾기 어려운 올스타 캐스팅과 더불어 거장 요넬 페를레아의 드라마틱한 연출이 역사적인 명연을 창조해내었다. 부록도 대단히 값지다. 바로 마리아 앤더슨의 메트 데뷔실황이었던 1955년 '운명의 힘' (밀라노프, 워렌, 로베르트 피터스, 잔 피에르가 함께 출연)의 하이라이트가 보너스로 제공된다.



Naxos 8.111049-50

베르디: 레퀴엠 (1954년 6월 녹음)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sop) / 오칼리아 도밍게즈(ms) / 주제페 디 스테파노(te) / 체사레 시에피(bass) / 라 스칼라 오페라 / 빅토르 데 사바타, 지휘

20세기 중반의 가장 위대한 오페라 지휘자의 한 사람이었던 빅토르 데 사바타. 1954년에 녹음한 베르디의 레퀴엠에서 사바타의 웅대한 거장성은 슈바르츠코프, 도밍게즈, 디 스테파노, 시에피로 이어지는 강력한 솔리스트 조합과 함께 최고의 연주를 만들어내었다. 세라핀의 49년 녹음과 함께 길이 기억될 역사적인 명연. 그가 남긴 몇 안 되는 관현악 녹음인 레스피기의 '로마의 분수' (47년 녹음)와 함께 베르디, 로시니, 볼프페라리의 오페라들에서 발췌한 관현악단편들이 보너스로 제공된다.



Naxos 8.111051

브람스: 이중협주곡, 바이올린소나타 3번, 베토벤: 바이올린소나타 5번 '봄' (1950-51년 녹음)

나탄 밀스타인(바이올린) / 그레고르 피아티고르스키(첼로) / 블라디미르 호로비츠 / 아르투르 발삼(피아노) / 필라델피아 로빈훅 델 오케스트라 / 프리츠 라이너, 지휘

밀스타인, 피아티고르스키, 호로비츠, 발삼, 라이너 등의 걸출한 거장들을 한꺼번에 만나게 되는 값진 음반. 호로비츠와 피아티고르스키는 하이페츠와 긴밀한 호흡을 맞추었던 것으로 유명하나, 밀스타인과도 역사적인 연주들을 함께했다. 특히 브람스 소나타3번은 밀스타인과 호로비츠가 함께 남긴 유일한 스튜디오 레코딩이다. 밀스타인과 피아티고르스키의 거장성에 라이너의 강력한 파워가 더해진 이중협주곡 역시 역사적인 명연임에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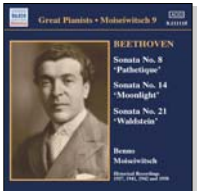


Naxos 8.111052

쇼팽: 연습곡 Op.10 & Op.25, 뱃노래 Op.60 (1933-49년 녹음)

알프레드 코르토(피아노)

알프레드 코르토 에디션의 세 번째 음반. 그의 장기 레퍼토리의 하나였던 쇼팽의 연습곡 전곡과 함께 뱃노래를 수록하였다. 이 위대한 피아니스트의 감성적인 터치들 통해 쇼팽의 연습곡들이 단순한 기예연마용 작품의 수준을 넘어서 위대한 예술작품의 반열에 놓여있음을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1933년에 녹음된 뱃노래 역시 특기할 만하다. 재생매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거장이 빛어내는 순정의 사운드와 뜨거운 열정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온다.



Naxos 8.111115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비창', '월광', '발트슈타인' (1927-50년 녹음)

벤노 모이세비츠(피아노)

모이세비츠 에디션의 아홉 번째 음반. 오데사 출신의 이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연주한 베토벤의 가장 유명한 피아노소나타 셋을 함께 담았다. 그가 연주한 '월광'을 두고 그라모폰은 '연주자는 이 이상의 연주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로 극찬했으며, 1941년 녹음인 '비창' 역시 낭만시대의 온풍을 머금은 대단히 뛰어난 연주로 손꼽혔었다.



Naxos 8.111138

로자 폰셀 - 아메리칸 레코딩스 1923-29 1집
아이다, 운명의 힘, 오텔로, 에르나니의 아리아들

로자 폰셀(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가 '가장 위대한 가수'라고 칭송했던 미국 출신의 소프라노 로자 폰셀(1897-1981). 그는 1918년 카루소의 상대역으로 출연한 '운명의 힘'으로 메트 오페라에 데뷔한 이후 20세기 초반을 장식한 가장 뛰어난 드라마틱 소프라노로 군림했었다. 그의 전성기 기록을 담은 이 음반에는 장기와도 같았던 베르디의 드라마틱 소프라노 아리아들이 엄선되었다. 귀에 익은 브람스와 스코트의 자장가, 셸리의 '사랑의 슬픔'이 함께 수록되었다.



Naxos 8.120826

넷 킹 콜 트리오 - That's What (1943-47년 오리지널 레코딩)

프랭크 시나트라, 페리 코모, 딘 마틴 등과 함께 4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중반을 풍미했던 스윙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보컬리스트였던 넷 킹 콜. 그가 막 음악계의 기대로 주목받던 즈음인 40년대 중반의 녹음들로 오스카 무어(기타), 웨슬리 프린스(베이스)와 함께 트리오 편성으로 활동하던 시절의 기록이다. 그를 스타덤에 올려놓았던 메가 히트곡 'Staighten up and Fly right'가 수록되었다.



LPO 0011

The Post-War Revival : 에두아르트 판 베이눔의 LPO 상임 시절(1947-50)의 희귀 음원들

아놀드: 벅커스 더 댄디프랫, 말라: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베토벤: 레오노레 1번
브람스: 하이든 주제의 변주곡, 엘가: 젊음의 지팡이 모음곡 2번

에프게니아 자레스카(MS) / 런던 필하모닉 / 에두아르트 판 베이눔, 지휘

비교적 짧은 생애로 아쉬움을 남겼던 네덜란드의 위대한 지휘자 베이눔은 종전직후 비침의 후임으로 런던 필의 두 번째 상임지휘자를 맡았었다. 그의 이른 죽음 때문에 이들의 밀월은 오래가지 못했지만, 이들의 소중한 만남을 기록한 귀한 음원들이 다행스럽게도 남아있었다. 거장의 장기였던 말라와 브람스가 수록되어 더욱 반가우며,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크라이나 출신의 메조 에프게니아 자레스카가 독창을 담당하였다.



LPO 0010

브리튼: 전쟁 레퀴엠

크리스틴 브리워(sop) / 안소니 딘 그리피(te) / 제러드 핀리(bar) / 런던 필하모닉 & 합창단 / 쿠르트 마주어, 지휘
2차대전의 참혹함을 라틴 레퀴엠 전례의 외형을 빌어서 표현하였던 브리튼의 가장 위대한 합창음악을 가장 쿠르트 마주어와 일급 솔리스트들이 뜨거운 연주로 담았다. 바로 2005년 5월 8일 2차대전 종전 60주년 음악회의 실황을 고스란히 옮긴 것이다.

'거장 마주어는 LPO로부터 강렬하고도 가슴 터질 듯한 심오한 연주를 이끌어내었다.

깊은 감동을 주는 연주' - The Independent 2005, 5월호 -

'완전한 설득력을 갖춘 연주' - The Guardian 2005년 5월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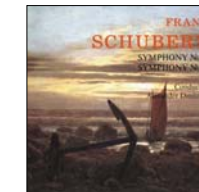


MEL CD 10 00749

러시아인 피아노 스쿨 Vol.4 - 에프게니 키신

라흐마니노프: 연습곡, 스크리아빈: 전주곡, 프로코피예프: 덧없는 환상, 키신: 인벤션

러시아 피아노 스쿨이 낳은 최고의 히트 상품을 꼽으라면 단연 키신의 얼굴이 떠오를 것이다. 그가 신동 피아니스트로 소련 인민들의 사랑을 받던 시절에 남겼던 귀한 연주를 담았다. 키신이 13살과 15살 되던 해에 가졌던 두 실황을 엮은 것. 애초에 음반을 목적으로 기록된 음원이 아닌 관계로 80년대 중반 녹음임에도 모노라는 황당한 오디오 포맷이나, 키신이 만들어내는 또랑또랑한 터치를 느끼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음향 해상도다. 음반 말미에 수록된 키신의 자작곡들을 만나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다.



MEL CD 10 01018

슈베르트: 교향곡 3번 D.200 & 4번 D.417 <비극적>

알렉산더 드미트리예프, 지휘 / 레닌그라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구소련시절부터 지금까지 러시아를 대표하는 지휘자의 한 사람으로 군림하고 있는 알렉산더 드미트리예프. 그가 러시아음악에만 정통했던 지휘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음반. 레닌그라드 심포니 역시 슈베르트 초기 교향곡의 담백한 아름다움과 로맨틱한 정취를 부족함 없이 구현해내었다.



MEL CD 10 00996

알베니스: 피아노 모음곡 <이베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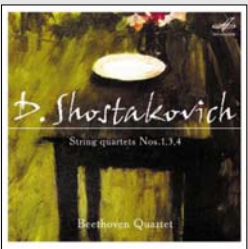
에두아르도 세민(피아노)

12곡의 소품으로 구성된 모음곡 <이베리아>는 스페인의 쇼팽이라 불리던 알베니스가 민족주의 음악에 눈뜬 이후에 작곡한 자신의 최고 걸작 중의 하나로, 스페인 특유의 짙은 향토색을 근대적인 감각과 화려한 기교를 활용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연주를 맡은 에두아르도 세민은 그레신 음악원에서 명교사 모슈냐코비치를 사사했다. 러시아 밖에서는 그리 알려진 이름이 아니나, 섬세한 톤 컬러와 드라마틱한 초절기교를 바탕으로 19, 20세기 레퍼토리 분야에서 발군의 활약을 보였던 연주자이다. 1980-85년에 녹음된 이 음반은 러시아 피아니스트에 의한 최초의 이 모음곡 전곡 녹음이기도하다.

전설을 만난다.

베토벤 현악사중주단의 쇼스타코비치 현악사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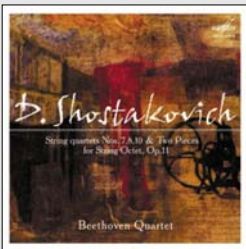
쇼스타코비치는 교향곡과 현악사중주 양쪽 모두를 15곡씩 완성하였다. 그는 20세기 최고의 심포니스트로 대중적인 유명세를 누리고 있으나, 현악사중주 분야에서도 그는 단연코 지난 세기의 가장 중요한 작곡가였다. 교향곡들에서 프라빈스키가 작곡가의 술 메이트 역할을 했었다면, 현악사중주 분야에서 같은 역할을 했던 이들이 바로 베토벤 현악사중주단이다. 이들은 작곡가의 현악사중주 중 1번과 15번을 제외한 13편의 초연을 맡았었다.(그중 6곡은 이 단체 전체 또는 멤버 개인에게 헌정된 곡이며, 피아노5중주 역시 이들과 작곡가 자신의 피아노로 초연되었다.) 1923년 결성된 이 사중주단의 창단 멤버는 드미트리 치가노프(1st vn), 바실리 쉬린스키 (2nd vn)와 세르게이 쉬린스키(vc) 형제, 그리고 바딤 보리스프스키(va)였다. 1962년 보리스프스키가 발병한 이후에는 그의 제자 표도르 드루지닌이 그 뒤를 이었고, 1965년 바실리 쉬린스키가 사망했을 때 공식해산을 결정했으나, 쇼스타코비치의 간곡한 부탁 등의 이유로 치가노프의 제자 니콜라이 자바프니코프를 새 멤버로 받아들여 활동을 계속해나갔다. 1978년 치가노프의 발병이후에도 사중주단의 명맥은 계속 이어졌으나,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80년대 초반 마침내 이 위대한 현악사중주단은 음악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사라져갔다. 멜로디아는 앞으로도 이들이 60년대에 녹음한 쇼스타코비치의 현악사중주들을 계속해서 발매할 예정이다.



MEL CD 10 00860

쇼스타코비치:
현악사중주 1번,
3번, 4번

베토벤 현악사중주단
(1961년, 1965년 녹음)



MEL CD 10 00861

쇼스타코비치:
현악사중주 7번,
8번, 10번,
현악사중주를 위한
2개의 소품*

베토벤 현악사중주단
코미타스 현악사중주단*
(1961년, 65년, 69년 녹음)



MEL CD 10 01006

하차투리안: 피아노협주곡, (오르간과 관현악, 15대의 트럼펫을 위한) 교향곡 3번

야코프 플리에르(피아노) / 키릴 콘드라신(지휘) /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936년 작품인 피아노협주곡은 작곡가의 초기 대표작으로 꼽힌다. 차이코프스키번, 라흐마니노프와 같은 선배들의 걸작의 영향과 함께 프로코피예프, 라벨 등의 동시대 작품과도 음악적 유사성을 보여주며, 작곡가 특유의 야성적이고도 원기 왕성한 에너지가 한껏 뿜어져 나오는 작품이다. 독주자는 플레트네프, 루디, 펠츠만, 다비도비치 등을 길러내었던 러시아 피아노악파의 위대한 이름인 야코프 플리에르. 여기에 콘드라신의 지휘가 보태졌으니, 서방의 카펠의 연주에 맞서는 본토박이들의 가장 강력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10월 혁명 30주년 기념작인 교향곡 3번은 풀 편성 관현악에, 오르간과 무려 15대의 트럼펫의 팡파르가 추가된 유례 없는 대편성의 작품. 생상 교향곡 3번 이외의 오르간과 관현악의 한 판 승부를 경험하고자하는 이들이라면 이 작품에 주목해도 좋을 것이다.

빅토르 피카이첸(Victor Pikaizen) 무반주 바이올린 작품 모음집

1965년 제노바의 파가니니 콩쿠르의 우승자하면서 파가니니의 재래라고 극찬을 받았었던 빅토르 피카이첸은 1933년 키예프에서 태어났다.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그를 가르쳤던 다비드 오이스트라흐는 이 제자의 범상함을 일찍이 알아보았다. 16세에 프라하의 쿠벨릭 콩쿠르에 입상한 것을 시작으로 그의 화려한 콩쿠르 경력이 이어졌다. 1955년 퀴엘리자베스 콩쿠르, 1957년 자크 티보 콩쿠르, 1958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 입상했으며, 마침내 1965년 파가니니 콩쿠르를 석권하였다. 1957년부터 모스크바 필의 솔리스트로 활동했으며, 1966년부터 86년까지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많은 후진들을 양성했었다. 1989년 그는 러시아음악계에 끼친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러시아 인민 예술가의 칭호를 수여받았다. 그는 광범위한 레퍼토리를 자랑했으며, 특히 기교적인 완벽함에서 극찬을 받았었다. 바흐에서부터 20세기 소비에트 작곡가들에 이르는 다양한 무반주 작품들을 담은 본 작품집은 그의 심원한 예술세계를 경험하는 절경이 것이다.

MEL CD 10 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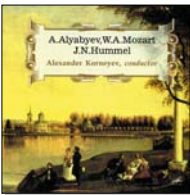
[수록곡]

JS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와 파르티타 BWV1001-1006

파가니니: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24개의 카프리스, 서주와 영국 국가에 의한 변주 서주와 로시니 라 체네티롤라 중 'Non piu mesta'에 의한 변주 'Pria ch'io l'impegno' 변주곡

하차투리안: 소나타 모놀로그 / **레비탄:** 변주곡 Op.45

바인베르그: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3번 / **모스트라스:** 카프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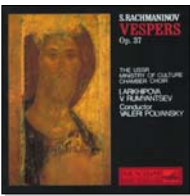


MEL CD 10 01016

알리아비예프: 서곡 F장조, 4대의 플루트를 위한 사중주
모차르트: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론도 K382, K386
훔멜: 피아노협주곡 A단조 Op.85

알렉산드르 코르네프 / 알베르트 호프만 / 블라디미르 파쿨리체프 / 레오니드 레베데프(플루트) / 아르보 발드마 / 드미트리 라체르(피아노) / 알렉산드 코르네예프 / 모스크바 필하모닉

현재 쾰른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인 에스토니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아르보 발드마가 연주한 모차르트의 두 편의 사랑스러운 론도와 라흐마니노프 콩쿠르, 리스트 콩쿠르 수상자이며 현재 모스크바 필의 솔리스트로 활동 중인 드미트리 라체르가 연주한 훔멜의 로맨틱한 피아노협주곡을 만나는 즐거움도 크지만, 이 음반의 백미는 19세기 전반기에 활동했던 러시아작곡가 알렉산드 알리아비예프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4대의 플루트를 위한 사중주는 플루트 음악 애호가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MEL CD 10 00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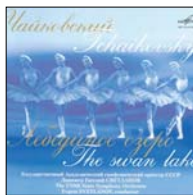
라흐마니노프: 저녁기도 (Vespers)

이리나 아르키포바(메조) / 빅토르 루만체프(테너) / 발레리 폴란스키 / 소련 문화성 실내합창단

러시아 정교음악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히는 라흐마니노프의 <저녁기도> 수많은 명연들이 가득한 작품이나, 묵직한 베이스가 만들어내는 든든한 토대 위로 투박한 앙상블로 동토의 굴곡진 애환을 절절히 토해내는 본토박이들의 연주만큼 가슴 속 깊이 사무치는 연주도 드물었다. 지금은 콘서트 지휘자로 더 활발히 활동 중이나, 한때 러시아 합창음악계의 최고 지휘자로 손꼽혔던 발레리 폴란스키가 소련 문화성 합창단을 이끌고 완성한 이 음반은 과거 BMG를 통해 인터넷서널 발매되었을 당시부터 이 작품의 필청반으로 각광받았던 명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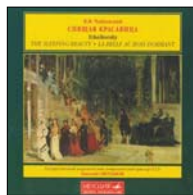
에브게니 스베틀라노프가 지휘하는 차이코프스키의 발레들

2002년 세상을 떠난 스베틀라노프는 아직도 러시아 관현악 레퍼토리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휘자로 남아있다. 그가 80년대 멜로디야를 통해 완성했던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3부작이 참으로 오랜만에 음반시장에 차례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먼저 <백조의 호수>와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이번에 소개되고, <호두까기 인형> 역시 머지않아 수입될 예정이다. 이 음반들은 스베틀라노프가 남겨놓은 이 작품들의 유일한 정규 전곡녹음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가치가 있다.



MEL CD 10 00403

차이코프스키:
발레 <백조의 호수> 전곡
에브게니 스베틀라노프
USSR 스테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1988년 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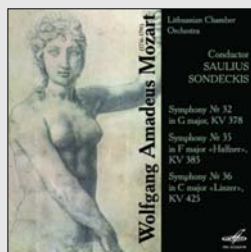


MEL CD 10 00406

차이코프스키:
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전곡
에브게니 스베틀라노프
USSR 스테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
(1980년 녹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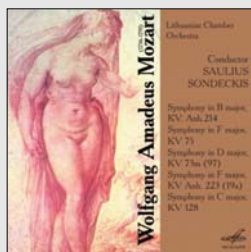
살리우스 산데츠키스(Saulius Sondeckis)
모차르트 교향곡

1928년 리투아니아에서 태어난 산데츠키스는 이 나라 음악계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거물급 음악가이다. 그는 빌니우스 음악원에서 알렉산더 리본트를, 모스크바 음악원에서는 이고르 마르케비치를 사사했다. 1960년 리투아니아 체임버 오케스트라를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이 단체를 이끌고 있으며, 이 단체를 세계 정상급의 체임버 오케스트라로 육성시켰다. 1989년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학생들과 더불어 상트페테르부르크 카메라타를 조직하였는데, 이 단체 역시 1994년 에르미타주 국립 박물관의 상주 오케스트라가 될 정도로 러시아 음악계의 자부심으로 성장하였다. 1991년에 녹음이 이루어진 모차르트 교향곡 음반들은 관례의 진부함을 벗어버리고 절충주의적인 시각에서 작품을 바라보고 있는 이 노거장의 참신한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수련들이다. 후기 교향곡의 두 걸작인 <하프너>와 <린츠>, 그리고 번호가 누락된 초기 교향곡(일부는 다른 작곡가의 작품으로 의심받고 있지만) 양쪽 모두에서 경쟁하나 경박하지 않고, 중후하나 투박하지 않은 지휘자의 연출력과 악단의 우수한 앙상블이 빛을 발한다.



MEL CD 10 00974

모차르트:
교향곡 32번, 35번 <하프너>, 36번 <린츠>
살리우스 산데츠키스
리투아니아 체임버 오케스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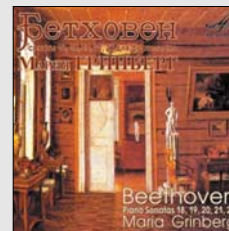
MEL CD 10 00975

모차르트:
교향곡 16번, 번호 미지정의 초기 교향곡 4편 (K75, K73m, K45b, K19a)
살리우스 산데츠키스
리투아니아 체임버 오케스트라

마리아 그린베르그(Maria Grinberg)
베토벤 피아노소나타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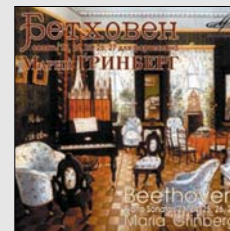
마리아 그린베르그(1908-1978)는 마리아 유디나와 더불어 20세기 중반기를 대표하던 소련의 여류 피아니스트였다.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명교수 블루멘펠트와 이굴노프를 사사하였고, 1935년 전 소련 콩쿠르에서 수상하면서 본격적인 연주활동을 시작하였다.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작곡가는 베토벤이었다. 극심한 냉전체제하에서 서구에 노출될 기회가 많지 않았으나, 수차례에 걸친 베토벤 치클루스를 통해 60년대의 주요한 베토벤 해석가로 명성이 높았다. CD로 그의 연주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기에 구전되는 명성만 남았었지만, 멜로디야를 통해 다시금 복원되기 시작한 베토벤 소나타 전집을 통해 그에 대한 재평가의 길이 활짝 열렸다. 여성의 것으로 믿기 어려울 정도의 강렬한 터치로 연출해낸 베토벤의 소나타들을 만나 보시라.

[New Releases]



MEL CD 10 00828

피아노소나타
18번, 19번, 20번,
21번 <발트슈타인>,
22번
(1964-66년 녹음)



MEL CD 10 00829

피아노소나타
23번 <열정>,
24번, 25번,
26번 <고별>, 27번
(1965, 66년 녹음)



MEL CD 10 00830

피아노소나타
28번,
29번 <함머클라비어>
(1966년 녹음)



MEL CD 10 00831

피아노소나타
30번, 31번, 32번
(1966, 67년 녹음)



MEL CD 10 00908

프로코피예프: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전곡

구소련의 출신 지휘자들 중에 다재다능함에서 첫 손에 꼽혔던 천재 지휘자 로제스트벤스키. 그가 지휘한 프로코피예프 발레 박스 세트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작품인 <로미오와 줄리엣>을 단품 발매한 것이다. 지휘자와 볼쇼이 극장 양쪽 모두의 최전성기 기록답게 작품의 생기발랄함과 섬세함이 생생하게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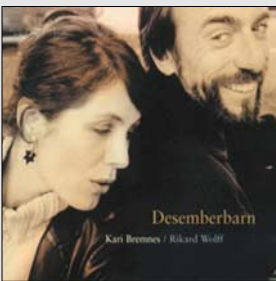
KKV(Kirkelig Kulturverksted)



FXCD 31

이트레 솔로엔스 재즈 앙상블 & 스크루크 합창단: 재즈와 합창단의 만남 YTRE SULOENS JASS-ENSEMBLE & SKRUK: KVITE SOM NEGRAR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최고의 재즈 앙상블과 합창단이 만난 1981년 앨범.
'주님, 주님, 주님', '소중한 주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오, 성자들이', '천국', '피와 눈물', '때때로 엄마가 없는 아이처럼 느껴져요', '주 안에서 사귄 친구', '강 아래로' 등 3분 내지 5분 정도 길이의 성가와 애창 명곡들. 연주와 노래 모두 매력 만점이다.



FXCD 247

카리 브렘네스 & 리카르트 볼프: 12월의 아이 KARI BREMNES & RIKARD WOLFF: DESEMBERBARN

환상적인 크리스마스 앨범.
노르웨이의 명가수이자 노래 작곡가인 카리 브렘네스가 스웨덴의 배우이며 가수인 리카르트 볼프와 만든 2001년 앨범. 제목 '12월의 아이'로도 짐작할 수 있듯이 크리스마스 앨범이다. 하지만 단순히 성가가 아니라 종교적이면서도 매우 시적인 노래다. 오디오파일용 음반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히르켈리히의 환상적인 음향 풍경을 보여주는 앨범이기도 하다.



FXCD 35

마리트 카를센: 영혼을 느끼다 MARIT CARLSEN: FEELIN' SPIRIT

이색적인 흑인영가와 가스펠
노르웨이의 위대한 소울 및 가스펠 가수인 마리트 카를센의 1982년 앨범. 2002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 노르웨이 음악 애호가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녀. 음반은 별로 많지 않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이 '필링 스피리트'다. 1982년 앨범으로 당연히 LP로 출시되었던 것을 CD로 재발매한 것. 안티폰 블루스로 유명한 아르네 돔네루스의 오케스트라가 스웨덴의 재즈 아티스트들과 함께 흑인 영가, 가스펠 송 등을 부른다. 감동적인 '이 한 장의 명반'이다.



FXCD 160

토레 브룬보리 & 크예틸 비에르케스트란: 크리스마스 재즈 앨범 TORE BRUNBORG & KJETIL BJERKESTRAND: GULL, TOKELSE OG MYRRA

크리스마스를 위한 재즈 캐럴 앨범. 숲속 교회에서 조용히 예배드리는 것 같은 음악이다. 중세 교회에서 녹음했고, 스튜디오가 아닌 교회 오르간의 성스러운 음향은 압권이다. 색소폰 연주자 브룬보리는 ECM을 통해 익히 알려진 아티스트. '고요한 밤'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노래들, 노르웨이 전통 성가도 여러 편 들어있다. 노르웨이 재즈의 고요하고 거룩한 순간이다!



FXCD 301

롤프 리슬레반트: 옛날의 크리스마스(FUL I GAMMEL TID) ROLF LISLEVAND: FUL I GAMMEL T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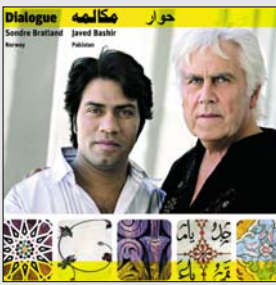
환상적인 노르웨이 크리스마스
고음악 아티스트로 기타와 류트를 연주하는 롤프 리슬레반트가 선사하는 1300년에서 1674년까지의 옛 크리스마스 음악. 고전음악 범주의 고음악 외에 전통적인 노르웨이 포크송, 그리고 몇몇 애창곡들이 연주된다. '하늘 높은 곳에서 들었던 천사의 음성' 등 노르웨이의 행복한 크리스마스 장면들을 순식간에 우리 공간에 펼쳐놓을 수 있는 베스트 크리스마스 앨범 중의 하나. 류트, 하프의 고색창연한 연주곡도 매력적이다.



FXCD 257

비야르네 브론드보: 다른 선로의 성가 BJARNE BRONDBO: SALMER PA VILLE VEIER

매우 인상적인 노르웨이 성가
성가를 중심으로 연주활동을 해온 노르웨이 가수 비야르네 브론드보의 앨범. 그의 성가들은 흔히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타, 오르간, 튜바, 드럼, 오르간 등의 악기들이 펼치는 기악과 성악의 향연이다. 아니 음유시인, 방랑 시인의 노래라고 해야 더 적절하다. 더블베이스, 브라스 혼이 가세한 '장미가 죽지 않는 곳(Dar rosor aldrig dor)', '노래(Songen)' 등 아주 시적인 감성이 풍부한 노래들이다.



FXCD 308

손드레 브라들란과 야베드 바쉬르: 대화

하나를 위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소통
노르웨이 포크송 가수 손드레 브라들란이 파키스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라호르(Lahore)를 여행하던 중 종교음악 쿠왈리를 부르는 가수 야베드 바쉬르를 만나게 되었다. 바쉬르는 파키스탄에서 꽤 유명한 가수다. 그들이 의기투합, 파키스탄의 옛 문화도시에서 함께 공연을 가졌다. 기독교 아티스트와 이슬람교 아티스트의 만남이었다. 이들의 이색적인 만남을 아주 특별하게 지켜보던 히르켈리히 음반사에서 두 사람이 만난 사건을 음반으로 남기기로 했다. 기독교 텍스트와 무슬림 텍스트가 얼마나 융화될 수 있을까? 하지만 확신에 차 있던 음반사는 야베드 바쉬르를 노르웨이 교회에 초청해 손드레 브라들란과 녹음을 감행했다. 악기 구성에도 세심한 신경을 써서 매우 사색적이고 명상적인 음악이 되도록 했다. '신과 하나 됨', '강을 건너', '소망', '길을 찾아서', '근원', '아침 찬가', '신의 존재', '천국', '나는 누구인가' 등 제목부터가 아주 참신하다. 물론 많은 소모적인 음악들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고, 기존 종교음악과도 아랫하게 다르다. 하지만 그들의 음반은 의아해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아름다운 하모니와 감동을 선사한다. 이 음반을 듣고 있으면, 종교는 결국 하나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받게 된다.

DACAPO
www.dacapo-records.dk

DACAPO

Classicstoday 10/10



DACAPO 8.226021

토마스 코펠만:
리코더를 위한 작품들
(문차일드의 꿈,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 협주곡,
넬레의 춤)

미칼라 페트리, 리코더 /
라스 한니발, 아치류트 /
보 홀텐, 지휘 /
코펜하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크레머라타 발티카

덴마크에는 코펠이라는 성을 가진 작곡가가 한 명 이상이다. 헤르만 코펠이라는 작곡가와 헷갈리기 쉬운 토마스 코펠(올해 사망하였다.)은 사실 헤르만의 아들이기도 하다. 토마스는 아버지와 음악스타일은 전혀 다르지만, 아버지의 그것에 뒤지지 않는 켈러티와 오리지널리티가 뛰어난 다수 음악들을 만들어내었다. 신보에 수록된 두 협주곡은 비록 자유로운 조성법으로 씌어진 작품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신선하고 생동감 있으며, 감동적이다.

귀는 변화하는 색채와 화음, 그리고 미칼라 페트리가 태연하게 만들어내는 초절기교적인 독주에 끊임 없이 도전을 받는다. '문차일드의 꿈'에서 리코더는 일반적인 바로크 장식품에서 해방되어 다른 어떤 작품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스럽고 생기발랄한 사운드를 들려준다. 코펠은 매력적인 방식으로 이 악기를 노래하게, 춤추게, 소용돌이치게 만든다. '로스앤젤레스 스트리트 협주곡' (제목과 달리 락, 재즈, 마리아키벤드 등과는 아무 상관없다.)에서의 소프라노 리코더 파트는 더 한층 심도 높은 초절기교를 요구하는 작품이나, 페트리는 피리 부는 사람을 연상시키는 고요하고도 마음을 진정시키는 연주를 들려준다. 코펜하겐 필하모닉(문차일드의 꿈)과 크레머라타 발티카(로스앤젤레스 협주곡)가 만들어내는 풍성한 분위기의 관현악 스코어가 흥미진진하다. 시적인 영감을 담은 '넬레의 춤'은 매우 독특하다. 리코더와 아치류트를 위한 이 무언가 형태의 10개의 소품은 라스 한니발의 신랄한 반주의 도움을 받은 미칼라 페트리가 대단히 서정적인 이야기꾼임을 증명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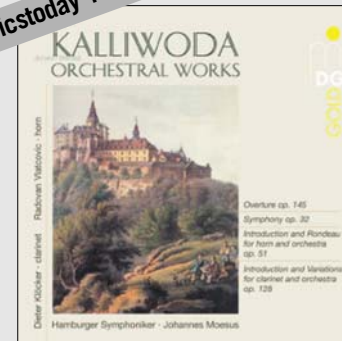
다카포의 레코딩은 실내악과 관현악 양쪽 모두에서 자연스러운 소리, 공간감 있는 어쿠스틱으로 귀를 즐겁게 만든다. 이는 기쁨을 주는 출시작이며, 특히 미칼라 페트리의 팬들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Victor Carr Jr from Classicstoday.com

MDG
www.mdg.de

Musikproduktion
Dabringhaus und Grimm[MD&G]

Classicstoday 10/10



MDG 329 1387-2

칼리보다:
교향곡 3번,
호른과 관현악을 위한 서주와 론도,
클라리넷과 관현악을 위한 서주와 변주,
서곡 12번

디터 클렉커, 클라리넷
라도반 블랏코비치, 호른
요하네스 뫼수스, 지휘
함부르크 심포니

신보에 수록된 4작품은 작곡가의 폭넓은 창의성과 준비된 호소력을 보여준다. 1843년 무렵에 서곡 12번은 메인테마가 슈만의 교향곡 1번 '봄'의 1악장 알레그로와 매우 유사하다. 헌정대상과 관련된 유명한 앤섬을 포함하고 있는 원기 왕성한 작품으로 이 작품의 작곡배경에 관해 궁금하다면 내지 안에서 이에 관한 설명을 찾아보길 바란다.

클라리넷과 관현악을 위한 서주와 변주는 재기 넘치게 씌어진 대단히 선율적인 작품이다. 호른과 관현악을 위한 서주와 론도에 대해서도 동일한 설명이 가능하다. 두 작품에는 디터 클렉커와 라도반 블랏코비치의 놀라운 연주가 더해졌다. 이들과 같은 짙막한 콘체르탄테들이 크고 긴 협주곡들을 선호하는 근대 레퍼토리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빛나는 3번 교향곡은 1830년에 완성된 작품으로, 당대의 독창적인 작품이었다. 지금 듣기에도 이해가 대단히 쉬운 작품이다. 1악장은 작곡가가 피아노에서 장난치던 아이로부터 발견했던 대단히 특이한 캐릭터의 다섯 음으로 된 테마 위에 건축되었다. 이는 대단히 흥미진진한 화성적인 채색을 가능케 하고, 몇몇 뛰어난 대위전개를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특히 중반부의 푸가토는 이후 등장한 교향곡작가들(특히 러시아 악파)에게 훌륭한 모델이 되었을 것이다. 이 반복악구는 안단테와 피날레악장에도 등장하여 각 악장의 재현부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며, 교향곡의 단조 코다에서는 위협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칼리보다의 작품을 잘 알고 있던 슈만은 이 작품에서 자신의 교향곡 2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고, 리스트 역시도 비슷한 일을 했었다.

안단테 악장 개시부의 목관 코드에 이어 솔로 첼로가 등장하는 부분은 세헤라자데의 전조를 느끼게 하며, 미뉴에트로 표시된 스케르초에서는 드보르작의 슬라브 춤곡의 선구자처럼 들린다. 트리오 부분의 가벼운 프레스토는 멘델스존이나 베토벤을 연상시킨다. 피날레는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의 그것과 완곡하게 닮았다. 요하네스 뫼수스가 이끄는 함부르크 심포니는 작품의 성격을 완전히 드러내는 연주를 들려준다. 특히 목관주자들의 뛰어난 활약과 금관과 타악기의 풍성한 울림이 돋보인다. 3번 교향곡은 대단히 중요하고도 능숙한 솜씨의 작품으로 독일 낭만 교향곡의 역사에 새로운 지형을 안겨준 작품이다. 이를 놓치지 마시라.

David Hurwitz from Classicstoday.com

수정처럼 맑은 음성

카티아 카르데날 Katia Cardenal

니카라과 출신의 가수 카티아 카르데날은 학생 때부터 합창단에서 노래를 시작했고, 1980년에 프로무대에 뛰어 들었다. 그녀는 오빠 살바도르와 함께 과르다바란코 듀오(Duo Guardabarranco)를 결성해 활동했는데, 그 듀오는



이른바 누에바 칸시온(nueva cancion)이라는 라틴 아메리카의 새로운 노래 운동을 절대적으로 지지했었다. 듀오는 니카라과의 민족해방, 즉 산디니스타 기간 중에는 소련, 캐나다, 그리고 미국도 방문해서 콘서트를 열었다. 1995년 노르웨

이에서 공연을 가진 후 카르데날은 유럽으로 이주했고 그때부터 솔로 가수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2005년 니카라과에 돌아온 후에도 그녀는 유럽과 남미, 미국에서 듀오 공연도 하고 혼자 공연도 했다. 그녀는 잭슨 브라운(Jackson Browne), 실비오 로드리게스(Silvio Rodriguez), 그리고 티시 히노호사(Tish Hinojosa) 같은

유명 가수들과 여러 차례 공연도 가졌다. 그녀는 지금까지 노르웨이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음반을 냈다. 우선 어쿠스틱 기타, 류트, 아코디언, 베이스, 퍼커션 등의 악기가 반주한, 실로 순수한 아이들 노래 앨범 '후진 땅에서(En Reveslandia, 1999년 노르웨이 녹음)'가 있다. 이 음반은 그녀의 소프라노 음성이 얼마나 수정처럼 맑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인지 확인하게 한다. '한여름 밤의 꿈(Sueno de una noche de verano)'이란 앨범에서 카르데날은 쿠바의 음유시인 실비오 로드리게스의 압도적인 레퍼토리들을 부른다. 그녀는 로드리게스를 1983년 나카라과의 수도 마나과에서 처음 만났다. '한여름 밤의 꿈'은 1998년 니카라과에서 녹음된 것인데, 그녀의 사촌 마리아 벨렌 카르데날(Maria Belen Cardenal)과 오빠 살바도르, 그리고 로드리게스의 아름다운 노래들을 담았다. 카르데날의 라틴 아메리카 레퍼토리에 대한 영감이 얼마나 풍부한지, 그리고 그녀의 성악 기교가 얼마나 섬세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앨범이다.

2001년 아바나에서 녹음된 '타우베 파 스판스카(Taube pa spanska)'에서 카르데날은 스웨덴 음유시인 에베르트 타우베(1890-1976)가 라틴 영감을 받아 쓴 작품들을 노래했다. 아주 섬세한 노래다. 카르데날의 노래는 언제나 편안하고 우아하다. 어쩌면 그렇게 우아하고 편안하게 노래할 수 있는지 동료 가수들이 늘 부러워한다. 카티아 카르데날, 그녀는 예술성이 인간성과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파스한 니카라과의 명가수다.

카티아 카르데날의 발매 음반들...



FXCD 231

KATIA CARDENAL: VEN A MI CASA ESTA NAVIDAD (카티아 카르데날 - 벤 아 미 카사 데스타 나비다드: 올 성탄절에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니카라과 출신의 카티아 카르데날이 스페인어로 부른 크리스마스 노래 모음집. 특히 이 앨범에는 쿠바의 유명한 기타리스트 레이 구에라(Rey Guerra)가 참여하고 있어, 독특한 라틴 기타 연주를 맛볼 수 있는 기쁨도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캐롤 뿐만 아니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음악도 들어있다.



FXCD 220

KATIA CARDENAL: BRAZOS DE S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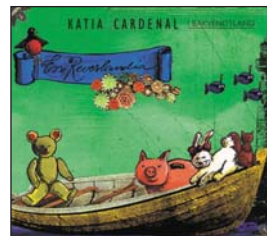
니카라과 출신의 여성 보컬리스트 카티아 카르데날의 96년도 앨범. 그녀의 자작곡과 실비오 로드리게스와 같은 남미 유명 뮤지션들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잔잔한 어쿠스틱 기타 연주에 실린 서정적인 보컬은 조미료가 가미되지 않은 음식처럼 담백함을 전한다. 1번 나의 길에, 2번 (아르헨티나) 아리엘 라미레즈의 세계적인 명곡 알폰시나와 바다



FXCD 236

KATIA CARDENAL: CANTA A SILVIO RODRIGUEZ (칸타 아 실비오 로드리게스: 실비오 로드리게스를 노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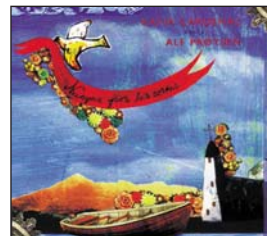
'누에바 칸시온(새로운 노래)운동'을 이끌었던 카티아 카르데날이 '누에바 트로바(새로운 발라드)운동'의 가수 실비오 로드리게스의 노래들을 재해석한 작품집. 노래로 대중에게 꿈과 이상을 계몽했던 두 뮤지션이기에 음악적인 궁합도 별다른 이질감 없이 조화를 이룬다. 특별히 3번, 15번 트랙에는 주인공 실비오 로드리게스가 참여해 듀엣을 이루고 있다. **추천곡: 8번



FXCD 217

KATIA CARDENAL: I BAKVENDTLAND (이 바크벤트란: 거꾸로 된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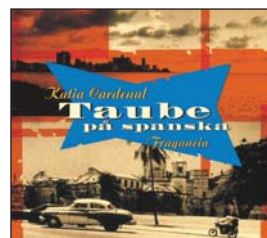
니카라과 출신 카티아 카르데날의 99년도 앨범. 노르웨이의 동요들을 재해석한 작품으로, 남미의 아름다운 멜로디와 맑은 동심이 한데 어우러지고 있다. 동화 같은 표지만큼이나 예쁘고 즐거운 곡들이 담겨 있다.



FXCD 208

KATIA CARDENAL: NAVEGAS POR LAS COSTAS

니카라과 출신 카티아 카르데날의 최고 인기 앨범. 남미 특유의 밝은 느낌, 북유럽의 낭만 그리고, 카티아의 부드러운 보컬이 음반전체에서 넘실거린다. 음반 재킷만큼이나 곱고 예쁜 곡들로 가득하며, 첫 곡 <Juan Y Sailomon (후안 이 쌀로몬: 요한과 솔로몬)>은 이미 라디오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FXCD 242

KATIA CARDENAL: TAUBE PA SPANSKA (칸씨오네스 데 에버 타우베: 에버 타우베의 노래들)

20세기초에 현존했던 스웨덴의 음유시인 에버 타우베 작품집. 평소 그가 관심을 가졌던 중남미 라틴음악들이 담겨있으며, 카티아 카르데날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듯 편안하고 능숙하게 노래하고 있다. 세월의 향기가 묻어나는 라틴음악의 수작음반이다. **추천곡: 14번

낙소스 음반들 독일비평가협회상 수상(受賞)하다

낙소스가 4분기별로 시상되는 독일비평가협회상의 두 부문을 수상하였다. 수상작은 콘스탄틴 세르바코프가 연주를 맡았던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레오폴드 고도프스키: 무반주 첼로모음곡 BWV1008, 1009, 1011의 피아노 편곡〉(Marco Polo 8.225267)과,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 리타 슈트라이흐, 니콜라이 겐다, 그리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았던 〈요한 슈트라우스 2세: 박쥐〉(Naxos Historical 8.111036-37)이다.

독일비평가협회상(Preis der deutschen Schallplattenkritik)은 독일 음악상 중의 가장 영예로운 상이다. 레코딩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위한 엄격한 기준'을 모토로 1963년에 제정되었다. 아래의 리스트는 지난 2000년 이후 독일비평가협회상을 수상했던 낙소스의 음반들을 정리한 것이다.



[독일비평가협회 수상 음반 리스트]

- * 2000년 4분기 - 뮐러: 그랑 모테트 3집 8.554399
- * 2002년 1분기 - 스메타나: 오페라 〈팔려간 신부〉 8.110098-99
- * 2002년 4분기 - 바그너: 오페라 〈지그프리트〉
Flagstad / Melchior 8.110211-13
- * 2003년 2분기 - 번스타인: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8.559126
- * 2003년 4분기 - 바그너: 오페라 〈발퀴레〉
Lehmann / Melchior / Walter 8.110250-51
- * 2004년 3분기 - 쇼스타코비치: 햄릿 D. Yablonsky 8.557446
- * 2005년 1분기 - 로저스 & 햄머스테인: 뮤지컬 〈남태평양〉 8.120785
- * 2005년 1분기 - 베토펜/리스트: 교향곡 9번 피아노편곡 K. Scherbakov 8.557366
- * 2005년 2분기 - 로저스 & 햄머스테인: 뮤지컬 〈오클라호마〉 8.120787
- * 2005년 3분기 - 포터: 뮤지컬 〈키스 미 케이트〉 8.120788
- * 2006년 1분기 - 자크 라 게레: 하프시코드 모음곡 8.557654-55

미네소타 오페라에서 있었던 로렌 프티기라르의 오페라 〈엘리펀트 맨, 조셉 메릭〉의 미국 초연이 호평을 받았다

2002년에 작곡된 프티기라르의 오페라 〈엘리펀트 맨, 조셉 메릭 Naxos 8.557608〉의 미국 초연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아래에 공연에 대한 〈Opera News〉의 리뷰를 간추려 게재한다. 로렌 프티지라르의 오페라 〈조셉 메릭, 엘리펀트 맨〉의 미국 초연을 맡았던 미네소타 오페라에 갈채를 보낸다. 뇌리를 떠나지 않는 통렬한 스코어와 에릭 논이 도발적이고도 능숙하게 각색된 리브레토를 겸비한 이 오페라는 모던 클래식에 대한 뚜렷한 느낌을 갖추었다. 끔찍한 기형아였던 엘리펀트 맨 조셉 메릭(1862-90)의 이야기는 버나드 포메런스의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1980년도 영화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프티지라르와 논이 풍부한 감정을 담아서 완성해 놓은 메릭의 삶에는 명백한 영웅이나 악당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프티지라르의 풍성한 선율들(나는 걸어나오면서 그 중 최소한 넷 정도는 허밍으로 흥얼거릴 수 있었다.)은 일반적인 장조와 단조 구조의 7음 음계와 구분되는 온음과 반음이 교대로 반복되는 독특한 8음 음계에 기초하고 있다. 결과물은 작곡가의 위대한 선배들인 라벨과 풀랑을 연상케 한다. 병원 환자들의 기도합창은 포레의 멋진 작품인 '파반느'의 가까운 친척과도 같은 느낌이다. 가서 새로운 작품을 맛보시라.

- Joshua Rosenblum, Opera News 2006년 5월호

인기 드라마 〈겨울연가〉의 마지막 촬영지

외도 보타니아의 사계(四季) DVD



경남 거제의 외딴 섬, 외도(外島). 온 국민의 감성을 사로잡았던 인기 드라마 〈겨울연가〉의 마지막 장면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드라마만큼이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우리나라 제일의 관광지로 급부상한 섬이다. 관광 명소로서 해상농원이라고 부르며 공식적인 명칭은 외도 보타니아(Botania)다. 며칠 전 외도 보타니아의 소유주인 최호숙 대표(여, 70세)가 최근 자신의 인생 모두를 걸고 일궈왔던 외도 관련 이야기를 담은 의미 깊은 책을 내놓고, 출판기념회도 가져 화제가 되었었다. 김영사에서 발간된 책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외도〉. 기상이 악화되면 교통이 두절되고 땀감이 없어 동백나무를 잘라 불을 지펴야 했던 곳, 크고 작은 실패를 거듭했고, 수차례 좌절을 안겨줬던 눈물 젖은 땅을 오늘날 지상천국처럼 변모시키기까지 그녀가 겪었던 모든 역경과 꿈이 기술된 책이다. 최 대표는 이번에 책과 거의 동시에 DVD 영상물도 출시했다. 이미 아울로스 미디어란 음반사를 통해 외도와 관련된 음반(외도의 하루 시리즈)을 낸 바 있는데, 이번에는 아름다운 고전음악을 배경으로 '외도'

의 곳곳을 약 1시간 동안 스케치한 DVD영상물까지 발매한 것이다. 모두 우리의 여행문화가 더욱더 고급해져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녀가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는 일들이다.

수많은 꽃과 고상한 고전 음악이 어우러진 DVD는 천국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환상적인 별천지 외도의 사계절 풍광을 담고 있다. 제작기간 1년이 넘었고, 관련 종사자의 엄청난 노력이 경주된 아이টে이며 물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다. 외도 곳곳에 있는 꽃과 클래식 음악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이른바 클래식 자연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꽃, 음악, 사랑이 있는 외도의 풍경이다. 고전음악에 맞춰 춤추는 꽃들의 미소와 속삭임,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 추억을 만들고 싶은 꽃길 풍경 같은 곳을 들고 보고 있으면, 도회생활에서 찌든 우리의 정서가 아주 맑게 순화된다.



TDK DVD



TDK DVWW-COMREQ

모차르트: 레퀴엠

연주: 빈 국립 오페라 합창단, 빈 콘센투스 무지쿠스
지휘: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열정적이고 드라마틱한 젊은 시절 아르농쿠르의 명연

1981년 11월 1일 오스트리아 빈의 무직페라인 홀 실황. 음원은 이미 텔텍(Teldec)음반으로 출시되었던 기록이기 때문에 잘 알려진 것이다. 아르농쿠르가 연주한 판본은 우리가 흔히 듣는 쥐스마이어의 것이 아니고 독일 음악학자 프란츠 바이어의 것. 바이어 판본은 텍스트추어를 간결하게 하고 음향도 절제해 상당히 금욕적이다. 아르농쿠르는 빈 국립 오페라 합창단, 축소된 원전악기 악단 콘센투스 무지쿠스로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차르트의 정서를 재현해낸다. 로버트 홀의 탁월한 가창, 25년 전 50대 초반의 지휘자 아르농쿠르의 열정적인 지휘모습은 매우 인상적이다. 보너스 트랙에는 바흐의 유명 칸타타 BWV161 '오라, 그대 달콤한 죽음의 시간이며'가 들어 있어 감동을 조금 더 연장시킨다. 76분(55분+보너스 트랙 21분)

[보조자료]

○ 1981년 11월 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상물이다. 콘서트 장소는 매년 신년음악회가 열리는 장소로 너무나 유명한 빈의 무직페라인 홀이다. 물론 이 연주회의 기록은 이미 오래 전에 텔텍(Teldec)음반으로 출시되었던 것이다. 아르농쿠르가 이 연주회를 위해 선택한 판본은 우리가 흔히 듣던 쥐스마이어의 것이 아니고 독일 음악학자 프란츠 바이어의 것이다. 바이어는 모차르트가 쥐스마이어 판본이 주는 이미지와는 달리 텍스트추어를 간결하게 하고 음향도 절제하는, 이른바 상당히 금욕적인 정서로 작품을 썼고, 또 그렇게 연주되기를 원했다고 말한다. 이런 판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주에 임한 아르농쿠르다. 하지만 이 연주기록이 음반으로 출시되자, 애호가들은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격렬하게 논쟁했었다. 만족하지 못하는 애호가들의 항변들 가운데 많은 부분은 당시만 해도 시대악기나 정격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기도 했다. 빈 국립 오페라 합창단과 축소된 원전악기 악단 콘센투스 무지쿠스가 어우러진 독특한 음향은 처음 듣기엔 매우 생경하다. 하지만 그것은 바이어가 원한 것이었다. 바이어는 모차르트가 실제로는 쥐스마이어 판본과는 달리 텍스트추어를 간결하게 하고 음향도 절제하는, 이른바 금욕적인 정서로 썼고, 또 그렇게 연주되기를 원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런 판본에 대한 이해로 연주에 임한 아르농쿠르의 해석이다. 솔직히 말해 독창자로 나온 사람 가운데 로버트 홀 정도는 출중하지만 다른 가수들은 그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연주 영상물은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이해하는 하나의 특별한 시각을 제공한 아이템임에는 틀림없다.

○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50대 초반의 잘 생긴 아르농쿠르, 그때만 해도 매우 젊게 보이는 지휘자의 열정적인 제스처와 눈빛을 보는 즐거움도 있다. 호리호리한 체형에, 부리부리한 눈으로 합창단의 텍스트를 함께 따라 부르며 혼신의 힘으로 지휘한다.



TDK DVWW-OPGIOC

폰키엘리 : 라 조콘다

〈라 조콘다〉의 암울한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살려낸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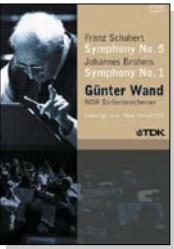
〈라 조콘다〉는 베르디와 푸치니 사이에 활동한 아밀카레 폰키엘리의 걸작 오페라로서 특히 여주인공의 비극적 운명을 가장 어둡고 깊은 감동으로 그려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주인공은 자신의 이름 대신 '가희(歌姬)'이라는 뜻의 라 조콘다로만 불릴 정도로 비천한 존재이지만, 온 몸을 바쳐 사랑한 연인 엔초가 옛 사랑과 재회하면서 위기 상황에 빠지자 자신의 목숨을 바쳐 두 사람을 구한다. 2005년 바르셀로나 리세우 대극장 실황인 본 영상물은 거장 피에르 루이지 피치가 무대와 의상, 연출을 도맡아 이 오페라의 어두운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살려냈다. 특히 색상 포인트를 주요 배역의 의상에 맞춰 자신들의 캐릭터와 운명을 상징하도록 했다. 타이틀 롤은 현역 최고의 드라마틱 소프라노로 평가받는 미국의 테보라 보이트가 맡았으며 악역인 바르나바 역의 카를로 구엘피도 최고의 바리톤이다. 이 오페라에 포함된 유명한 발레 '시간의 춤'에는 스페인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발레리노 앙헬 코레야, 피에르 루이지 피치가 특별히 총애하는 발레리나 레티치아 줄리아니가 특별출연하여 오페라 공연에 포함된 발레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가장 도발적이고도 수준 높은 볼거리를 선사한다.

[보조자료]

○ 아밀카레 폰키엘리(1834~1886)의 유일한 걸작 〈라 조콘다〉는 1876년 밀라노의 라 스칼라에서 초연되었는데, 일반적인 평가보다 훨씬 중요한 작품이다. 베르디 최고의 걸작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음악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묵직한 분위기는 1890년대 이후에 전개된 베리조모 오페라의 전통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요 등장인물의 캐릭터 또한 어느 걸작 오페라 이상으로 뚜렷하다. 예컨대 밀정 바르나바의 경우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어느 악역보다도 치를 떨게 만드는 존재이며, 라 조콘다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한 채 비극적인 최후를 스스로 선택하는 가장 불쌍한 주인공이다.

○ 총연출과 무대, 의상을 맡은 피에르 루이지 피치는 건축가 출신답게 항상 대담하고 상징적인 무대장치와 섬세한 액팅으로 극찬을 받아왔다. 본 공연에도 베네치아의 분위기를 간결하게 살려내면서, 특히 여성 주요 가수에게 도드라진 색상의 의상을 입혀 전반적인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살려냈다.

○ 타이틀롤을 맡은 테보라 보이트는 1990년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여자 성악 우승자다. (당시 우리나라의 최현수가 남자 성악부 우승을 차지했다.)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비대한 체구가 항상 지적되곤 했는데, 최근에 위장 절제수술을 받아 감량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본 공연 당시에는 체중을 줄이는 단계에 있었으며 현재는 이보다 더 날씬해졌다.



TDK DVWW-COWAND7

귄터 반트: 슈베르트 교향곡 5 / 브람스 교향곡 1번

NDR 심포니 오케스트라 / 귄터 반트

1997년 쉐레스비히-홀스타인 페스티벌 실황. 영상으로 남겨진 위대한 거장의 마지막 불꽃들 2002년 2월 14일 90세의 일기로 사망한 20세기 마지막 독일거장 귄터 반트. 노쇠한 육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찬연히 불타올랐던 그의 위대한 예술혼을 이 숭고한 영상물을 통해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브람스 교향곡 1번, 슈베르트의 교향곡 5번으로 이어지는 보다 확대된 레퍼토리의 폭을 보여준다. 이번 영상물들 역시 뮌헨에서 개최되는 쉐레스비히-홀스타인 페스티벌에서의 실황을 수록한 것으로, 1997년(브람스 1번, 슈베르트 5번) 기록들이다.



BBC / Opus Arte DVD



BBC/Opus Arte
OA 0959 D

벨리니: 노르마

‘오페라 속의 오페라’로 전혀 새롭게 탄생한 <노르마>의 혁신판

벨칸토 오페라 걸작인 <노르마>는 고대 로마 시대의 갈리아를 배경으로 드루이드교의 여제사장인 노르마와 로마 장군 폴리오네의 숨겨진 사랑, 그리고 폴리오네가 젊은 여승 아달지자를 사랑하여 벌어지는 삼각관계의 비극이다. 귀 주스탱이 연출한 네덜란드 오페라의 프로덕션은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했다. 노르마를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의 상징으로서 오페라 주역 가수로 설정한 것이다. 게다가 <노르마>의 전설적 명가수 마리아 칼라스의 이미지를 투영했다. 극이 처음 벌어지는 상황은 오페라 분장실이며 폴리오네와 아달지자 역시 오페라 가수들이다. 노르마는 마리아 칼라스가 즐기던 의상과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다. 그러나 점차 오페라의 내용과 극의 내용이 녹아들어간다. 연출가의 훌륭한 상상력 덕분에 노르마의 비극과 칼라스의 비극이 동시에 구현되는 것이다. 미국 출신의 해스닉 파피안(노르마)과 휴 스미스(폴리오네)가 치밀한 가창을 들려주며 특히 아테네 출신의 이리니 트시라키디스(아달지자)에게 주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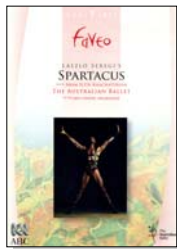


BBC/Opus Arte
OA 0957 D

프로코피예프: 세 개의 오렌지의 사랑

상상만 할 수 있었던 온갖 창조적 재미를 무대 위에서 구현한 걸작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는 ‘20세기의 모차르트’로 불린 러시아의 천재적 작곡가다. <세 개의 오렌지의 사랑>은 그가 소비에트로 귀환하기 이전인 1921년 시카고 리릭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되었으며 오페라 역사상 가장 특이한 재미를 지닌 작품의 하나다. 18세기 이탈리아 극작가 카를로 고치의 우화에서 취재한 것으로 우울증에 빠진 가상의 왕국의 왕자가 먼 여행 끝에 세 개의 오렌지를 얻고 그중 하나의 오렌지에서 나온 니네타 공주와 결혼한다는 얘기다. 왕국을 둘러싼 여러 신화와 마법사, 악마, 광대가 등장하여 두 시간 내내 동화적 세계를 펼쳐내면서도 그 음악과 대사는 고차원적인 유머를 담고 있다. 2005년 암스테르담의 네덜란드 오페라 실황인 본 영상물은 ‘그리노블의 피에르 아우디’로 불리는 로랑 펠리가 연출과 의상을 맡았다. 희극의 이면에 감추어진 깊은 맛을 끌어내는데 탁월하다는 정평이 있는 펠리는 샬탈 토마의 환상적인 무대장치와 더불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환상적인 무대를 펼쳐냈다. 슈테판 드뇌브가 지휘하는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역시 프로코피예프의 복잡한 악보를 명쾌하게 소화해낸 호연이다.



BBC/Opus Arte
OAF4017D

스파르타쿠스

커크 더글러스의 영화에 버금가는 스펙터클 발레의 결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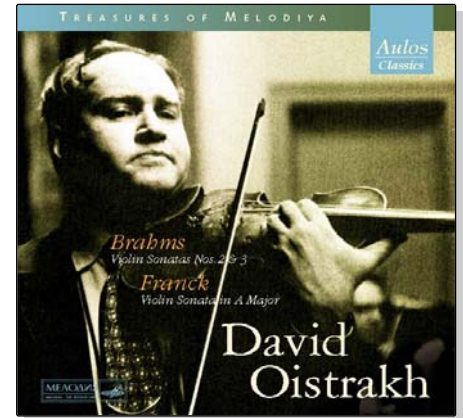
역사상의 실존인물인 스파르타쿠스는 기원전 1세기에 로마 제국에 대항한 노예 반란군의 지도자다. 한때 로마군을 연파하고 남부 이탈리아의 상당한 지역을 장악했으나 로마의 대장군 크라수스에게 패하여 부하 6,000명과 함께 아피아 가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했다. 스파르타쿠스는 18세기 이래 혁명적 사상가에 의해 재조명되었으며 20세기에는 영화로, 발레로 만들어져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발레로는 아람 하차투리안의 음악에 유리 그리가로비치가 안무한 볼쇼이 발레의 프로덕션이 전설적이다. 그러나 헝가리의 안무가 라자로 세레기는 그리가로비치와 비슷한 시기인 1968년에 자신의 작품을 만들었다. 역시 하차투리안의 음악을 사용하였으나 그 전개방식은 커크 더글러스가 출연한 스탠리 큐브릭의 1960년 영화 <스파르타쿠스>에 가깝다. 본 영상물은 1990년 호주 발레단이 공연한 것이며 이 발레단 최고의 스타인 스티븐 히스코트가 타이틀 롤을, 같은 발레단의 라이벌인 그레고 호스만이 크라수스를, 리자 파반느가 스파르타쿠스의 아내 플라비아 역할을 맡았다.

멜로디야의 불후의 명반 컬렉션

멜로디야의 보물들

국내 최고의 클래식 음반회사 아울로스 미디어가 지닌 중요한 이미지 중의 하나는 러시아의 전설적인 클래식 음반인 멜로디야 음반을 라이선스로 발매하여 커다란 호평을 받는 회사라는 것이다. 아울로스가 러시아의 멜로디야 음원 보관실을 뒤져 확보한 음원을 DSD 리메스터링을 거쳐 음향을 향상시키고, 또 내지도 이전보다 충실하게 만들어 발매했을 때, 국내외 애호가, 비평가들은 놀라움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당연히 아울로스는 그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고, 기획, 제작사로서 항상 뿌듯함을 느꼈다. 한동안 아울로스 미디어가 내세우는 가장 큰 자랑거리이기도 했던 일이 있었다. 영국의 클래식 음반 리뷰 사이트인 뮤직 웹 인터내셔널에서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전집박스(키릴 콘드라신 지휘)를 사이트 최고의 영예인 ‘올해의 음반’으로 선정해주었던 사건이다. 이 엄청난 영광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설렌다.

멜로디야 라이선스는 이 순간에도 국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애호가들의 지속적인 사랑은 언제나 무거운 책임감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아울로스는 그간 멜로디야 라이선스에 대한 이미지를 발전적으로 쇄신하고, 보다 애호가들의 직접적인 관심을 끌만한 레퍼토리를 엄선해 보겠다는 의지로 <멜로디야의 보물들>이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앞으로 아울로스의 멜로디야 클래식 음반은 대부분 이 시리즈로 나오게 될 것이다. 시리즈 타이틀이 말해주듯이, 아울로스는 이 새 시리즈를 통해 이미 LP시절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명 음원들만을 엄선해서 재발매하려고 한다. 물론 이전과 같이 음질과 내지의 충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한다. 멜로디야는 어마어마한 음원의 바다이지만, 그 많은 음원들 가운데서도 불후의 음원만을 엄선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EMI의 GROC 시리즈나 DG의 오리지널스 시리즈처럼, 단 한 장의 음반도 빠뜨리지 않고 모을 가치가 있는 시리즈가 되게 하겠다는 신념으로 시작하는 일이다. 애호가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기대한다.



AMC2-070

브람스 : 바이올린 소나타 2번 & 3번

프랑크 : 바이올린 소나타

연주 : 다비드 오이스트라흐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

<멜로디야의 보물들>제 1탄!

설명이 필요 없는 불후의 명연주

아울로스 미디어에서 러시아 클래식 음악의 보물창고 멜로디야의 최고 명연주 음원만을 골라 새롭게 발매하는 <멜로디야의 보물들> 시리즈... 그 첫 음반으로 다비드 오이스트라흐가 남긴 불후의 명 음원 브람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및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가 선택되었다. 그 어떤 바이올리니스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오이스트라흐의 순수한 톤과 뜨거운 열정! 작곡가의 우수를 완벽하게 파악한 가슴에 사무치는 해석, 음악적인 면에서 뭐 하나 아쉬운 점이 없는 최고의 명연주다. 충실한 음악 해설, 많이 개선된 음향!!!

NAXOS DIGITAL SERVICES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로 선정,
세계 최대 클래식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는 **NAXOS**는

방대한 자체 레퍼토리와 유럽 음반사들의 음원들을 더한
클래식 전문 스트리밍 사이트인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와
재즈 전문의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를 선보입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korea

- 약 11,000개 음반 / 165,000여 트랙의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음악 서비스
- Naxos & Marco Polo 전체 레퍼토리와
- Analekta, ARC, Artek, BIS, Bridge Records, CBC, Celestial Harmonies, Collegium, Dacapo, First Edition, Gimell, Hänssler, Morrison Music Trust, PentaTone, Prophone, Proprius, Toccata Classics 레이블의 음악
- 매달 25~30여장의 음반 업데이트
- 오페라 대본, 작곡가, 아티스트 및 작품 해설 등의 유용한 정보제공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jazz

- Naxos Jazz와 Fantasy Jazz 등 22개 유럽 재즈 레이블 음악
- 총 1,900여 개 재즈 음반 / 약 20,000 트랙
- 약 500여명 에 이르는 재즈 뮤지션들의 음악

“거대한 음원의 바다...”

(그라모폰 코리아)

“지금까지 접해본 가장 인상 깊은 디지털 라이브러리.”

(미국 도서관 저널, 평가 등급 A+)

“시·공간이 절약되는 온라인 콘텐츠”

Sound Quality: CD Quality (128K) / Near-CD Quality (64K)

시범서비스 & 문의

NAXOS KOREA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51-37 이테크빌리 1206호
Tel_02 717 1070 / E-mail_naxoskorea@naxos.com
www.naxoskorea.co.kr



모차르트 오페라 [가짜 여정원사]

Mozart : La finta giardiniera

아르농쿠르가 마법의 숨결을 불어 넣은 모차르트의 숨겨진 걸작



TDK DVD-DWWOPFINT

모차르트가 19세에 작곡한 오페라 부파 <가짜 여정원사>는 공연될 기회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음악적인 문제보다 부파의 틀을 벗어난 기이한 캐릭터와 줄거리 때문이다. 주인공 산드리나(소프라노)는 연인으로부터 의심받아 칼에 찔렸다가 기사화생하여 옛 연인을 찾아 나선다. 벨피오레(테너)는 산드리나를 죽였다고 착각하고 멀리 도망하여 그곳의 숙녀인 아르민다와 결혼하기 직전이다. 이곳에 여정원사로 위장한 산드리나가 나타나고 더 많은 남녀가 가세하여 복잡한 애정관계가 펼쳐진다. 그러나 산드리나와 벨피오레의 행동이 비상식적이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대본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오스트리아의 배우 출신 연출가 토비야스 모레티는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설득력 있는 해석을 꾀했다. 두 주인공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살해시도라는 충격적인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것이다. 청초한 소프라노 에바 메이(산드리나), 글래머스타 이자벨 레이(아르민다), 매력적인 금발의 테너 크리스토프 스트렐(벨피오레) 등이 출연했으며, 우리 시대 최고의 모차르트 지휘자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가 마법 같은 연주를 펼친 2006년 2월 취리히 오페라 실황이다.



표지사진 :
다비드 오이스트라흐

월간 <아울로스뉴스> 2006년 9월호
통권 제 15호 발행 : 2006년 8월 24일
발행인 : 임용목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usic.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代)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